

2차 포럼 및 세미나 리뷰:

한반도 자신학화와 자선교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김재완 전도사(기독교세계관 학술 동역회 실행위원)

1. 서론

2021년에 10월에 실시되었던 제 2차 자신학화 포럼은 한반도 자신학화 및 자선교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재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차 포럼이 자신학화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 집중하였다면, 2차 포럼은 그 개념을 역사적으로 포착하여 한국의 정황에서 재발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 내에 존재하는 자신학화 시도와 그 역사를 개괄할 뿐만 아니라 이벽, 김교신과 같은 인물들의 삶과 저작들을 통하여 자신학화의 흔적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 선교운동의 교육과 훈련 측면에서 한국 선교의 자선교화 현실 및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글은 역사적 탐구라는 틀 안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제 2차 자신학화 포럼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차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다섯 개의 발표들을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목을 붙여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각 발표의 의의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 자신학화와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사, 전제 재고, '제 3의 길' - 이재근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자신학화'라는 주제가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전면에 부상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선교활동가들의 연구모임인 '설악포럼'에서 선교학자 권성찬, 한철호 교회사가 이덕주 등이 자신학화에 대한 발제를 했을 뿐아니라, 그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사가 이성배 신부의 강의를 청해듣고 미로슬라브 볼프와 한스 킹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후년인 2013년 8월,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학술지 「현대선교」 제15호는 '자신학화'를 특별주제로 정하였고, 당시 한국선교연구원 원장인 문상철은 자신학화를 “다른 교회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내면서 자주적인 신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학술지에서 “한국교회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의 방향모색”이라는 논문을 쓴 안점식은 자신학을 가리켜 “신학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 of theology)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즉, 그에게 자신학이란 변하지 않는 텍스트(text)로서의 복음을, 변하는 상황(context)에 적실하게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을 신학에도 적용시킨 것이었다. “세계화와 자신학화:신학의 글로벌화에 대한 소고”를 쓴 최형근은 논지를 정리하며 “결국 자신학화는 교회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지역교회들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의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이다.”라고 논한다. 그가 “신학의 글로벌화”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문상철, 안점식, 그리고 최형근의 자신학화 논의는 모두 일맥상통하다.

2014년 7월에 발간된 「한국선교KMQ」 51호는 이와 같은 논의의 맥을 잇는다. 자신학화를 주제로 한 이 학술지에는 14편의 글이 실렸는데 총론에 해당하는 8편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신교 선교 시작 130년이 된 한국교회는 네비어스 선교정책에 기반한 완전한 자립, 자치, 자전을 이루어냈으며 이제는 자신학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2차대전 종결 후 세계정세는 냉전체제로 들어서면서 탈식민 논의가 가속되었고 이에 세계기독교계와 선교계에서도 선교지 교회 및 신생교회의 토착화와 현지화를 강조하는 의식과 논의가 많아졌다. 이와 함께 서양에는 에큐메니컬 진영을 중심으로 해방신학, 사신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등이 대두하였고 제3세계를 배경으로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물소신학, 인도신학 등이 소개되었다.

복음주의자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를 염려하며 이러한 흐름을 경계와 의혹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폴 히버트와 같은 선교인류학자의 등장으로 복음주의 학계에서도 점차 서양문화를 기독교 문화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토착화 되고 상황화된 복음주의 신학이 필요하다는 ‘자신학화’ 논의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1980년대에 시작된 이와 같은 논의는 2000년대에는 윌리엄 테일러의 ‘자선교학’ 논의와 함께 복음주의권 선교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역시 이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신학적 사대주의, 성장주의, 부패 등의 문제를 안고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한 한국교회에게 자신학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2020년에는 ‘자신학화 포럼’이라는 ‘반추하는 실천가들의 모임’이 탄생하며 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가 가능한 장이 열렸다. 이 포럼의 문제의식은 “진정한 자신학화가 없다면 진정한 자립도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설악포럼부터 이어져 온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다. 2020년에 진행된 1차포럼에서는 6명이 각기 다른 주제로 발제했으며, 각기 차례로 기조강연에 해당하는 정민영의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의의”, 문화간 소통에 대한 철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자신학에 접근한 주광순의 “상호문화철학과 자신학화”, 한국 사회 및 교회의 실천의 기반이 되는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을 짚은 장창수의 “한국교회 성장과정에 나타난 ‘자신학’ 부재 원인과 현상 관찰”, 이슬람을 배경으로 기독교 자신학화의 가능성을 다룬 두 개의 글인 김철수의 “인간의 보통성 개념을 통한 이슬람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 권성찬의 “이슬람의 상황에서 자신학화 기독교론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 자신학화의 필요성을 다룬 김홍주의 “코로나 19 재난과 한국적 자신학화”가 발표되었다.

포럼 이후에는 약 1년간 네 차례의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들은 주로 한국교회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학화의 사례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학자 이만열을 초청하여 단재 신채호의 민족의식과 역사 연구 간 상관관계, 그리고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와 ‘성서 위에 세워진 조선’에 대하여 살폈고, 김교신 연구자 김은섭을 초청하여 김교신의 역사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후 함석헌 연구자 김진 목사를 초청하여 함석헌이 시도한 자신학화의 흔적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변진석 선교사를 초청하여 한국선교사가 지닌 자신학화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소개되고 논의된 자신학화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그 의의를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는 복음주의권 자신학화 논의는 상황화와 토착화 신학이 에큐메니컬 진영만의 유산일 수 없음을 자각하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둘째는 상호문화철학과 같은 철학 및 인류학 등의 주류 인문학계와도 교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한국 교회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신채호, 김교신, 함석헌 등을 소환하여 자신학화의 사례를 찾아내어 동시대 교회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는 한 가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한국신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서양신학을 표준이자 보편으로 여겨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전제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상이나 문화와 같이 무형의 실재는 그 외양이 수입된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없다. 이처럼 19세기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한반도로 수입된 기독교가 ‘서양 신학’으로 오늘날까지 마치 유형의 실재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는 교정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신학은 수입된 서양 신학이라기보다는 ‘원형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전승된’ 무언가다.

앤드루 월스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토착화 원리와 순례자 원리의 이중구조로 설명한다. 토착화 원리란 교회와 신학이 그것이 속한 문화와 토양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례자 원리란 시공간의 문화를 초월하여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본질적 능력을 가리킨다. 또한 월스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복음이 전달될 때의 상황을 ‘번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고 이 번역의 시초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복음을 각 사람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선교의 시발점이다. 월스에게 있어서 선교 역사는 곧 번역의 역사다. 바꿔 말하면, 복음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달될 때에는 반드시 번역이라는 과정이 처음부터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 즉 상황화, 토착화, 자신학화의 과정은 전달자나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인간 대리자들이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교회 상황에서 자신학화 논의는 결코 불필요한 것, 무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외국인인 서양 선교사가 수출한 신학을 일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오류없고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신학으로 수용했다는 도식적인 전제에는 재고가 필요하며,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자신학화 논의에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마크 놀이 제기했던 중요한 질문을 한국의 상황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해외선교의 결과를 두고, “비서양 국가의 기독교는 미국기독교의 단순한 복제품인가?”라고 물었다. 월스의 영향을 받은 놀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에 대한 미국교회의 영향력은 아주 큰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월스와 놀은 자신학화 논의가 지닌 다면성을 드러내며 자신학화 논의의 제 3의 길을 제시해 준다. 이 제 3의 길이란 선교사들이 전해준 서양 신학을 표준신학으로 주장하는 길과 한국 기독교를 서양의 수입 신학으로 전제하는 길 사이에 난 길이다. 제 3의 길에서 보는 자신학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상황화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관점을 열어준다.

3. 한반도 자신학화 흔적의 재발견

1) 이벽과 자신학화 - 권성찬

이벽은 한국 천주교에서 창립 성조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1754년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했으며 30여년 짧은 생애를 살고 1785년에 소천하였다. 정약전, 약종, 약용의 이복 형인 정약현의 아내가 이벽의 누나였고 이들 형제의 누나는 이승훈의 아내였다. 조선의 초기 천주교 공동체는 이벽을 중심으로 정약용의 집안과 이승훈 등을 통하여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는 1779년 당시 천진암(주어사에 속한 암자)에서 열린 강학회에 참여해 실학과 서학 위주의 학문 모임을 위해 참여한 여러 지인들과 토론을 통해 한국 최초 천주교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다. 이후 서울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교리를 연구하는 등 이에 따른 천주교 전파를 해 왔으며, 1784년에는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을 통해 권일신, 정약용 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1785년에는 지금의 명동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어(을사추조사건) 잡혔다가 훈방이 되었으나 집안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 부친의 반대로 집에 갇혀 있다가 식음을 전폐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교요지는 그가 기록한 글인데 서두에 ‘천학초함’을 읽고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천학초함은 마테오 리치를 통해 기독교인이 된 중국인 이지조가 1628년에 마테오 리치 등 선교사들이 기록한 여러 책들과 자신의 글을 포함하여 출간한 당대의 기독교 총서와 같은 것이다.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글들이 조선으로 전해졌고 이벽은 이러한 책들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배 교수의 구분을 따라 성교요지를 3편으로 나누어 보면, 1편은 성경을 요약한 부분, 2편은 유학경전과 성경의 가르침을 연결한 부분, 3편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성교요지는 성경과 문화(유학)과 자연을 망라하고 있다.

<이성배 교수가 붙인 성교요지 전체 장제목>

제1편 성서적 이해

1. 창조주 하나님 2. 인간성: 카인과 노아 3. 구세주 예수 4. 구속자 예수 5. 예수의 가족 (마리아, 요셉) 6. 예수의 주위 상황 7. 예수의 영세 8. 예수의 시험 9. 예수의 선교 10. 예수의 가르침 11. 예수의 업적 12. 예언의 성취 13. 사랑의 희생제사: 종말의 준비 14. 예수 일생의 끝 15. 예수의 심판

제2편 유학 경전의 지식

16. 수신 17. 어린애 18. 청년 19. 선비(士) 20. 농부(農) 21. 공장인(工) 22. 상인(商) 23. 제가 24. 치국 25. 평천하 26. 성(誠) 27. 원수 28. 그리스도인의 생활 29. 그리스도를 본받음 30. 선교사

제3편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노래함

31. 자연의 호교론 32. 하늘(하느님의 위대함) 33. 땅(하느님의 넓으심) 34. 시간(하느님의 영원성) 35. 산천(하느님의 아름다움) 36. 인간(하느님의 섭리) 37. 집(영혼의 순결) 38. 옷(영혼의 빛남) 39. 도구(덕행의 실천) 40. 보물(진리) 41. 음악(교회) 42. 꽃과 나무(인간의 내세) 43. 채소(가톨릭 교리) 44. 새와 짐승(하느님의 자비) 45. 물고기와 조개(영혼의 가치) 46. 벌레와 곤충(인간의 새 생명) 47. 죽음(그리스도인 생활의 권면) 48. 하느님(신앙생활의 실천) 49. 하느님 나라(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희망)

조선의 초기 천주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선교사들이 상황화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황청의 교리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집중했으나, 그 이전에 예수회 소속 중국 선교사들이 보유론(補儒論)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한문으로 기록한 책들이 조선으로 전해졌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 책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다. 그렇기에 조선 천주교에는 유교권에 상황화 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벽의 성교요지에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문헌을 참고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도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알레니 신부가 네 자씩 운을맞추어 ‘四字經文’에 ‘未有天地 先有天主’(미유천지 선유천지,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천주께서 계셨도다)라고 서술한 것이 성교요지에서 ‘未生民來 前有上帝’(미생민래 전유상제, 세상 사람 나기 전 이미 상제 계시니)로 표현되고 있다.

이벽의 성교요지는 자신학화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상황화와 자신학화를 구분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황화는 외부인인 선교사가 선교지의 문화를 존중하며 복음을 표현한 것에 더 가깝다면, 자신학화는 전달받은 복음을 내부인의 관점에서 반

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예수회 선교사들이 유교를 배척하지 않고 기독교로 유교를 보완하려는 ‘보유론’의 관점에서 선교지에 접했다면, 이벽의 성교요지는 조선인 내부자가 본인의 언어와 문화와 사고방식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반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벽이 읽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알레니 신부의 사자경문과 이벽의 성교요지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 이벽은 자신이 읽은 알레니 신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방식에 기반하여 재구성하였다. 그의 글이 지닌 자신학화적인 면모는 이벽이 당대의 실학자들과는 다르게 주체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였던 것을 잘 드러내 준다.

구체적으로, 이벽은 유교의 천명(天命), 인(仁), 예(禮), 성(誠)등의 관계를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이벽이 성(誠)을 유교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탐구하였기에 그 틀을 통해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 곧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벽은 성(誠)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했다. 즉, 말씀이 강생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 위에서 그는 당대 형식에 치우친 유학과 유학자, 특히 세도가들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벽의 기독교 이해로 보아 그는 앤드루 월스가 분석한 복음 전파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회심 단계’에 있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고대 교부 저스틴이 구약과 신약을 헬라철학의 틀로 이해하고 정립한 것과 같이 이벽은 성(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유교적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벽의 기독교 이해는 단지 인간과 초월세계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와 자연에까지도 확장되며 조선 시대 유교를 배경으로 한 폭넓고 깊은 자신학적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2) 김교신과 자신학: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 탐구 가능성에 관하여 - 정갑신

본 발표는 자신학의 탐구는 곧 신자의 존재적 조건에 대한 탐구라는 전제하에, 김교신의 삶과 신학을 통하여 자신학적 논의를 위한 ‘믿음의 존재적 차원’을 살핀다. 김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신학의 흔적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김교신의 자신학이란 ‘전적 기독교’를 향한 열망의 분비물이었다. 둘째로 그에게 자신학은 ‘조선산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갈망의 분비물이

었다. 셋째로, 김교신의 자신학이란 수입된 기독교가 내포할 수밖에 없었던 탐욕과 자기중심성을 떠나 성경이 응원하는 삶과 역사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영혼의 분비물이었다.

즉, 그에게서 발견되는 자신학이란 기성의 것들에 대한 두 반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한 편에는 기성의 것들 중 최소한의 본질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 반감이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사대주의적 모방을 통해 확보한 틀에 거하려는 열망이 있다. 김교신은 전자와 친근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양 편으로부터 비껴가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혀진 어떤 것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잡힌 자신학은 다름 아닌 김교신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존재적 근거에 기인한다. 그 존재적 근거란 무엇이며, 그의 삶과 신학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이 질문에 여섯 가지로 답을 하겠다.

첫째로, 김교신은 절대 진리를 날카롭게 지향함으로 진리 외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상대화 시킬 수 있는 존재였다. 자신학이 가능하려면 절대 진리에 대한 순전한 열망과, 동시에 진리의 사회문화적 표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사랑하면서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김교신은 진리와 그 본질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동시에 복음의 외적인 요소들을 존중하면서도 상대화시키는 자세를 잊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그가 상대화하려했던 최우선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김교신의 일기에는 그가 자기중심성, 무력함, 자격 없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며 성찰한 흔적들이 가득하다. 또한 그는 일본 유학시절 민족주의 혹은 식민주의와 같은 확증 편향된 이념보다는 진리를 향한 열망을 더 중히 여기는 자였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그가 특히 사대주의를 극단적으로 경계하면서도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객관적 지식을 확보하는 일을 즐겨워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복음의 절대 진리로부터 그 외의 다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둘째로, 김교신은 하나님께 의존한 주체가 되려는 존재였다. 주체자가 되려는 강력한 갈망은 그의 역사인식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실체에 대한 전면적 이해로부터 발현한다. 성서조선 92호(1936.9)에서의 고백은, 김교신의 주체의식을 잘 반영한다. “이런 때에 우리의 친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은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를 논하든지 신앙을 의(논)하든지 우선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김교신은 이러한 주체의식이 조선인들 안에서도 확장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형성된 주체의식에 따라, 김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체적 책임자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살아내는 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

셋째로, 김교신은 진리의 본질인 사랑을 끈질기게 지향하는 존재였다. 그는 가족, 제자, 조선 백성들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자 했다. 자신학의 근간에는 주신 것, 받은 것, 주어진 것, 나를 둘러싸고 형성된 것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김교신이 기성교회에서 멀어진 인사들과도 친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네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장을 맡기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집에 무려 9명 이상의 학생들을 식솔로 받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우선적 대상에 자신을 일치시켰다. 김교신은 성서 조선 발간 포기를 수차례 진지하게 고려한 바 있었으나, 그는 소록도 나환자에게서 받은 편지 한 통을 읽고 힘을 얻어 생각을 돌이키기도 했다. 더 나아가 김교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나아갔다. 이렇듯 사랑을 지향하는 김교신의 면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은 진리에 대한 굴복에서 나온 존재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김교신은 진리가 너무나 선명하여 본질로부터 비본질을 속히 발라낼 수 있는 존재였다. 그의 글에서 볼 수 있는바, 그 마음에는 예수와 그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람, 조선인과 그 역사 등이 늘 가까이 있었다. 반면 그가 마음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것들은 자기중심적 욕구로 주조된 고정된 제도나 형식, 교파적 신조와 관행, 교파중심주의, 형식주의, 종교적 배타주의, 불관용주의, 율법주의적 성례전주의,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 그리고 그것에의 편안한 굴복 등이다. 이러한 추구하고 배제의 지속적인 여정에서 그의 조선산 기독교, 전적 기독교가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여정을 걷기 위해 김교신은 본질과 본질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한껏 포용하는 동시에 욕망에 기울어진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배제하려 했으며, 그러한 담백하고 단호한 태도에서 우리는 자신학을 향한 그의 존재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삶의 태도는 다음의 인용구에 잘 드러난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교신자보다도 조선 혼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게로 가라.”

다섯째로, 김교신은 진리의 속성 곧 균형 잡힌 상황화를 자기 안에서 이루는 존재였다. 그는 진리에 사로잡힌 자로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상황화와 과도한 상황화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였다. 김교신은 정치사상의 프레임이나 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라는 틀이나, 심지어 무교회의 프레임으로도 사람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대로 복음의 진리와 사람됨이

라는 창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사람들이 류영모의 요한복음 해석을 비판하는 것에 동조하지도,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또한 신앙의 도를 가르쳐달라는 이광수에게 신앙의 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그에게 도리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는 진리의 부요함을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여백을 둔 채로 세상을 품을 수 있었고, 이는 그가 당대 조선의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균형을 추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여섯 번째로, 김교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일상성을 입증하려는 존재였다. 그는 일상에 침투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그는 진리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았다. 이러한 일상이 빠진 자신학은 허망한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김교신이 우치무라 간조를 통해 배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일상적인 삶의 일치였으며, 여기에서부터 김교신의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은 가능했다. 특히 그는 일상을 살아가는 소박과 단순의 조선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자신과 조선인들의 일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겼다. 일상의 중대함과 관련하여 김교신의 일기장에는 종종 자신이 출생 후 몇 날이 흘렀는지를 날 수로 계산하여 기록한 것이 남아있다. 그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온전하게, 참 신자로서 살기 위해 초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 또한 집 앞 농사와 가축 돌보는 일에 힘썼으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키웠다. 즉, 김교신의 직업은 하나, 곧 모든 일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본직이 잡지 발간도 아니요, 집회 개최도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거하여 살고 있으면 족합니다. 그것이 전도도 되고 사업도 될 것입니다.”(성서조선 143호, 1940.12) “원하건대 게으름으로 악을 행하는 일 없이, 쓸데없는 세포분열만 하다가 조선적인 환갑잔치를 베푸는 추태를 보이기 전에 노동장에서 땀 흘리다가 쓰러지기를...”(1932년 7월 일기)

결론적으로, 김교신의 삶과 신학을 통하여 자신학 논의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자신학화가 이론적, 인식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그리고 그러한 차원들을 넘어서, 모든 신자가 존재적 차원에서 진리를 받아 살아내야 하는 존재적 각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신을 통하여 살펴본 자신학화는 모든 신자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또 응답해야 할 존재적 질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3. 한반도 자신학화 및 자선교학의 오늘과 내일

1) 자신학화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선교 훈련 방향 - 장창수

본 발표는 세계기독교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오늘날 한국선교계가 마주한 과제들 중 선교 교육과 선교 훈련의 영역에 대하여 자신학화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한국 선교는 그 강력함과 폭발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 선교 지도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전략의 부재, 훈련의 부족, 상황화에 대한 이해 부족, 교단과 지역교회 중심적 사고와 행동, 다민족 및 다인종 협력의 결여, 고비용 저효율 모델의 추구, 성직자 중심, 언어습득의 문제. 전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총무는 “한국선교를 인정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선교가 비서구선교의 대표 주자라고 하지만 정작 선교 수행 방식은 서구 모델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자선교학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둘째는 타문화 현장에서 신학적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교육 수준이 높긴 하지만 이런 점이 도리어 경직성을 강화하여 현지 문화 이해 및 상황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선교계가 성과주의 중심의 선교를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내에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문화는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과 과정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온전한 선교를 위해서는 다섯가지 Self가 필요하다. 이는 곧 자전, 자립, 자치, 자신학화, 자선교학이다. 이 5가지 Self를 단계적으로 이루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온전한 목표이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서 5개의 Self를 실천하였음을 증언한다. 반면 한국 선교의 오랜 문제점들은 모두 이 5가지 Self가 현지에서 적용되지 못했음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선교운동에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임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학의 목적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다. 만일 이 주제를 대면하지 않는다면 한국선교는 단기간의 가시적 사역과 그 성과만 얻을 수 있을 뿐 삶과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는 복음의 사역, 열매, 교회를 배태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 교육 및 훈련을 성찰하며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물론 지금까지의 선교 교육과 훈련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선교의 교육과 훈련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는 오늘날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해서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던 한국선교는 이제 동원, 허입, 훈련, 파송, 은퇴라는 한 세대의 주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음 세대 다음 주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점에 다다랐다. 둘째로는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 세대의 선교운동 속에 드러난 문제와 한계를 반추하며 극복과 변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기독교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선교강국이 된 한국교회는 변화무쌍한 오늘날 세계기독교의 흐름 안에서 좋은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현지 기독교들이 자생하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학의 관점에서 선교 교육 및 훈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선교 교육과 훈련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원리와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탈학습(Un-Learning)이다. 탈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수행하고 이해해온 한국 선교 안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서구 선교의 요소들 때문이다. 두 번째 원리는 성인 학습 기반이다. 이는 피교육자들이 일방적 주입식 강의가 아닌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적 동기 강화의 방식이다. 이는 외적 자극이나 보상이 아닌 내적인 동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된 선교 교육과 훈련을 정립하고 내면화, 내재화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교회 교육과 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울타리와 경계를 강화하는 식의 제자훈련이 아닌 성도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주체적, 자주적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선교사의 교육과 훈련이다. 여기서 자신학과 자선교학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고 경청할 수 있는 방식의 유연성을 갖춘 신학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선교 현장의 교육과 훈련이다. 이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점검을 의미한다. 특별히 선교지 신학교 교육과 리더십의 양육과 위임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지인들이 자신학에 머물지 않고 자선교학을 도모하도록 도와야 한다.

2) 자신학화 논의의 미래와 과제 - 정민영

신학 작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보듬어내는 일이다. 존 스토틀은 이것을 ‘이중 경청’으로 표현하였다. 해박한 성경 지식의 소유자였던 존 스토틀 역시 진리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는 경청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각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로 하여금 진리와 상황 두 가지 영역 모두를 경청하는 균형 감각을 갖게 하였고, 이 균형 감각은 1970년대에 그가 주도했던 로잔운동과 이후 저술들에 잘 드러난다. 중요한 점은 경청이란 스스로 하는 것이 외부의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중 경청을 통한 자신학화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토착 신앙공동체의 과제다. 달리말해, 이중 경청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민감성을 요구하며, 좌(세속화)로나 우(도피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자신학화의 정도(正道)이다.

그렇다면 한국 상황에서 자신학화 논의의 미래와 과제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まずは 온고이지신의 정신, 즉 계속되어야 할 회고와 반추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한 선각자들을 찾아내어 그 발자취를 추적해보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한다. 이벽과 김교신의 사례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이후 자신학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룬 것은 2012년 1월에 열린 제6차 설악포럼이었다. 여기서 자신학화는 서구권 선교와 비서구권 선교가 지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본질적인 과제라고 보았다.

둘째는 자신학화 개념의 심화와 접근론의 정제이다. 자신학화는 지나가 버린 과거 전통문화를 들춰내서 신학화하는 류의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대적 적실성을 담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학화는 동시대적 상황화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따라서 문화의 세 가지 층인 행동양식, 가치체계, 세계관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계관 차원의 논의는 자신학화가 문화의 표층 현상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계관이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아우르는 통전적 관점은 물론이고 통섭적 접근을 요청한다. 이는 1차 자신학화 포럼이 철학과 논리학 등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했던 이유이다. 물론 그럼에도 텍스트 우선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교신의 삶을 통해 배우듯 성경이라는 본목(本木)에 조선을 접목해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다시 ‘이중 경청’의 자세를 요청하는 것이고 문화 긍정과 문화 변혁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던져준다.

셋째는 미래지향적 과제로서 자신학과 더불어 자선교신학이다. 자선교신학을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선교적 상황은 자신학화 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상호강화하는 측면이 있기에, 또한 건강한 선교운동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안점식은 세계관 차원에서 다뤄지는 자신학화가 해석학적 렌즈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해석학적 혁명은 복음이 시대를 넘고 문화를 넘을 때 일어난다”고 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교회 신학계와 선교계에 일어난 해석적 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자신학화의 초점은 지역신학에 머물기보다 다양한 자신학들의 교차문화적 대화와 교류를 통한 초문화적 보편신학을 지향한다. 문상철은 자신학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신학적으로 의존적이어서도 안 되고, 독립적이어서도 안 되고, 상호의존적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자신학화 포럼에서 주요 키워드였던 ‘보편신학을 향한 원탁대화’는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선교운동이 지향해야 할 유효한 목표이다.

4. 맺는말

이렇듯 제 2차 자신학화 포럼이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 자신학화의 흔적을 살펴본 것은 자신학이라는 주제가 필연적으로 역사와 동시대 상황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섯 개의 발제는 모두 각각 자신학화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명해주고 있다. 그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사가 이재근은 한국에서 ‘자신학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논의되었던 대화의 역사를 정리해 주었다. 더 나아가 2012년 설악포럼 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자신학화 논의 내내 줄곧 반복적으로 등장 하던 전제인 “수입된 서양신학”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과도한 단순화일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늘날 한국 자신학 논의에 “결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앤드루 윌스와 마크 놀의 선교신학의 기반 위에서 지적해 주었다. 말하자면, 자신학화는 한반도 교회와 신학의 역사를 “수입된 서양신학”이라는 단순화, 도식화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날 우리가 한국신학에 대해 “수입된 서양신학”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상 그러한 인식이 포착하지 못하게 했던 역사적 주름들과 조밀한 맥락

들과 복잡성들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때에야 진일보 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학화는 어쩌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발견한 것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권성찬과 정갑신의 발제는 각각 조선의 이벽과 일제 강점기의 김교신이 어떤 방식으로 당대의 역사와 일상을 주름지우고 조밀하게 만드는 방식의 신실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벽의 성교요지에는 성경적 진리, 예수회의 선교, 중국, 조선의 유교라는 다층적인 해석학적 결들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맥락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으로 오늘날 우리가 동시대적 자신학화 작업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반면 김교신을 통해서도 동일한 작업이 어떻게 '일상'과 '존재'라는 차원에서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의 삶에서 발견된 자신학화의 흔적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정황, 가족과 이웃이라는 사회적 상황 등 그의 삶을 둘러싼 모든 맥락에 깊숙이 천착하였던 한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존재 그 자체이기도 했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한국(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신학과 삶, 즉 자신학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정민영이 강조하듯, 어제의 과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대면해야 할 동시대적 자신학의 과제를 대신할 수 없다. 장창수와 정민영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바, 자신학화의 과제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 문화가 담지한 타당성 구조를 읽어내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장창수는 한국 선교교육과 훈련이 지향해야 할 자신학적, 그리고 자선교학적 과제가 어떤 지향점을 고수해야할지 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지점에서 강조되는 세계기독교라는 맥락은 오늘날 세계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의 입지를 생각하게 하며, 이는 우리에게 자신학화가 과제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정민영은 자신학화와 자선교화는 오늘날 당면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신학을 위한 원탁대화'라는 미래지향적인 과제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